

성도의 교제 |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 가는 교회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알림

- 1. 실만한 물가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 2. 2023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향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 3. 주보 안면에 있는 말씀 노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목요 성경 공부: 에베소서 강해가 종강 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 5. 매주 토요일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식품/갤러리아 앞) 문의: 김윤규 목사
- 6. 손금미 집사님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 드립니다.
- 7. 고린도전서 3 장 16 절 (2023 년 6 월 성경 암송 구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8.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mailto:rwgchurch@outlook.com)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rwgchurch@outlook.com / rwgchurch.ca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b>주일 예배</b>	<b>오후 1:30</b>	<b>인도: 김윤규 목사</b>
목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b>85 장(통 85)</b>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b>2. 시편 2 편</b>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b>찬 91 /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b>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b>317 장 (통 353)</b>	김윤규 목사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마가복음(Mark) 12:35-37</b>	인도자
설 교 Sermon		김윤규 목사
	<b>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Who is Jesus?</b>	
*찬 송 Hymn	<b>80 장 (통 101)</b>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톡채널



## || 말씀 노트 ||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막 12:36)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1. 마가복음 12 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 가면서 요한 마가를 통하여 전해지는 예수님의 비유와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세기의 종교 지도자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2. 마가복음 12 장 35-44 절의 말씀에는 세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35-37: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12:38-40: 서기관들의 외식

12:41-44: 가난한 과부의 헌금

3.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4. 예수님께서 스스로 질문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막 12: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5. 구약 성경은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렘 23:5)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사 11: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사 11: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6.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하면서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반약하거나 잘못되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7. 예수님께서서는 시편 110 편 1 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하십니다.

(막 12:36)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8. 시편 110 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36 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9.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메시아)의 원수들을 주님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10.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최후의 심판의 날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메시아의 발 아래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11. 예수님께서서 시편 110 편 1 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은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으로만 언급하고 있지만,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다윗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2. 예수님께서서는 본문 37 절에서 서기관들이 언급하고 있는 **혈통적인 메시아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12:37)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13. 예수님께서서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으실 때에 대 제사장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막 14:61)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14. 결과적으로 다윗의 시를 예수님께서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15.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 할 때에 삼천명이 세례를 받는 사건에서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 베드로가 마가복음 12 장 35-37 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동일하게 시편 110 편 1 절을 인용해서 언급하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행 2: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16.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는 삶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